

영광·함평·신안·목포 저수온 주의보

수온 2~6도까지 내려가 양식장 피해 우려...보온덮개 등 설치 양식 생물 동사 막아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7일 오후 2시를 기해 영광·함평·신안·목포가 포함된 충남·전남 서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로 연안 수온이 2~6도까지 내려감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전남해역의 수온은 영광 낙월 3.5도, 함평만 2.3도, 신안 압해 5.8도, 목포 6.2도로 양식생물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수산과학원은 지난달 13일 전국 연안에 저수온 관심 단계, 지난달 28일 충남 가로

림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수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거나, 평년 대비 2도 이상의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때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한다. 해양수산부는 “올겨울 첫 저수온 주의보 발령 해역인 충남 가로림만은 지난 겨울보다 2주가량 늦은 12월28일에 주의보가 발령됐다”면서도 “지난달 말 한파 이후 기온이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유지돼 전수만과 서해 내만 해역은 지난 겨울과 비슷

하거나 이른 시점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저수온 주의보 발령 해역에 자리한 어장은 양식생물의 동사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능성어·돔류·조기·취지 등은 저수온에 특히 취약해 양식어가에서는 사료 공급량 조절, 영양제 공급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또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동사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평균 수심을 3m 이상으로 유지하고 면적의 1% 이상을 율동장으로

구획해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육상양식장은 정전 발생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보온덮개를 설치해 보온을 유지해야 동사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저수온 주의보 발령 시군에서는 양식생물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육상 양식시설에 보온덮개를 설치해 한파로 인해 양식생물이 동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수온 정보와 이상 해양 속보 등은 실시간 해양환경 여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ifs.go.kr/risa)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전남도 5·18 기념사업 공모

전남도가 지역별로 열릴 예정인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공모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등록된 5·18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4부분으로 ▲5·18민주화운동 지역별 기념행사 ▲5·18민주화운동 마라톤대회 ▲전남지역 5·18역사의 현장 순례 ▲전남지역 5·18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등이다. 총 지원금액은 1억900만원(도비 100%)이며, 심사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역별 기념행사는 7000만원, 마라톤대회 1500만원, 현장 순례 1000만원, 환경정비 14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민행복소통실 민간협력팀(061-286-2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남북 금강산서 새해 행사

30~31일

남북 양측은 오는 30~31일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공동행사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는 지난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에 이반 행사 날짜를 30~31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보내왔다. 이연희 남측위 대변인은 7일 “남측위가 여러 유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북측위가 동의해 음에 따라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주변 흡연 안돼요 7일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최현배 기자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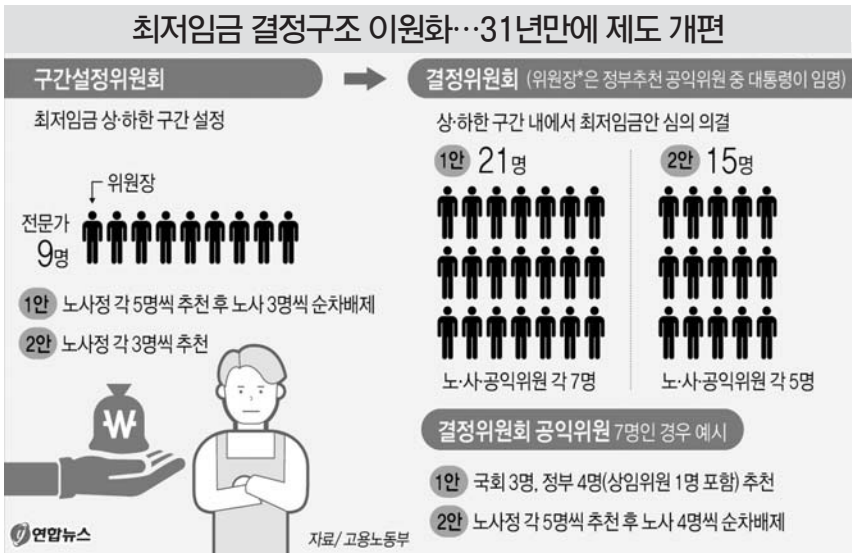
양승태 ‘징용소송’ 직접 개입 정황 포착

청와대 의견 받아 들여 “배상 판결편 일본 반발” 의견 제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관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

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 소부에서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참고인으로 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

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문가 구간 설정...노·사·공 인상수준 결정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21~30일 대국민 의견수렴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각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

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던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단독

바로합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특수물건만 취급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사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 매 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조은날부동산

☎ 010-3111-50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화순읍 이십곡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거리 2억6천

• 영광 배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서구 송촌동 윤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평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정읍시 신대인읍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제주시 애월읍 땅 10023㎡ 공사중단건물 신탁 51억 유치권 30억·81억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룠 87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영잘됨 3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